

강점관점으로 본 ADHD 아동 어머니의 양육 경험에 관한 연구*

최 말 옥

(경성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ADHD 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들의 체험을 통한 본질의 의미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면접은 2010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약 12개월동안 14명의 ADHD 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2~3회에 걸쳐 현상학적 연구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강점관점으로 본 ADHD 아동 어머니들의 양육경험의 본질은 '완주를 위해 자신과 싸우는, 원하지 않는 마라톤'을 위해 달려가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어머니의 강점관점으로서의 경험 본질은 '그래도 이쁜 내새끼와 함께하기 위한 힘을 찾아가는 여정'인 마라톤이었으며 그 경험은 시·공간적으로 8가지로 구성되었다. 처음 아이의 독특한 행동들을 겪으며 '혼란의 연속'속에서 'ADHD진단의 먹먹함'을 경험하지만 '엄마라는 운명'에 아이를 위한 총체적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그 과정에서 '총알이며 은총인 선생님의 말'에 절망과 감사함을 경험하면서 엄마들은 원하지 않은 마라톤의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포기할 수도 없는 완주를 향해 달려가는 외로운 전투를 하면서도 내아이를 위해, 나를 위해 '그래도 긍정적으로' 살기로 한다. 하지만 자식을 위해 자신을 독려하지만 쉬운 과정은 아니다. 그럼에도 아이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버텨내는 힘'을 얻게 된다. 평범하지 않은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고 '현재진행형이지만 그래도 이쁜 내새끼를 위하여' 오늘도 엄마는 아이와 함께 완주를 위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도착점'이 다시 '출발점'이 된다 하더라도 달려갈 수 밖에 없는 마라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 ADHD 어머니와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실천과제를 제언하였다.

주제어: 강점관점, ADHD 아동, 양육 경험, 현상학적 연구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9-327-B00447)

1. 연구 목적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이하 ADHD)는 주의산만, 충동성 및 과잉행동을 주 증상으로 하는 아동기의 대표적 증상이다. 미국 아동에서는 아동의 약 3~7%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로 진단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Pastor and Reuben, 2002).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8년 서울시 환경보건진흥원이 44개교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병율이 3.8%로 나타났으나(<http://stat.mw.go.kr/stat/data>), 서울과 대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병률이 7.6%(조수철·신윤오, 1994)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ADHD 증상은 청소년기뿐 아니라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많다(Barkley, 1998).

ADHD는 증상 자체도 문제이지만 대인관계에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자주 받는 어려움을 지닌다(Cantwell, 1996). ADHD 아동의 부주의한 행동, 과잉행동, 충동적인 행동 등은 아동의 주보호자인 어머니에게도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는 원인이 되므로 어머니가 아동행동양식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ADHD 아동을 양육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ADHD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그 발병원인을 설명하고 있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생물학적 요인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원인에 의해 ADHD가 나타난다고 하지만 ADHD 아동이 나타내는 행동의 정도와 강도는 환경적 요인으로 보기도 한다. 특히 어머니의 아동에 대한 장애인식의 정도에 의하여 양육태도는 달라지고 그에 의해 ADHD 아동의 행동양상도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다.

장애아동 어머니의 경우 아동에 대한 인식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즉,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의 인식정도에 따라 자녀의 장애를 현실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현실보다 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McLoughlin, Clark, Mauch and Petrosko, 1987; Ferrari, Methew, and Barabas, 1983).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ADHD아동의 행동을 인식하는 정도에 의해 자녀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부담감 증가는 주지체체인 어머니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며, 아동을 바라보는 태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Dyson, 1993; Biegel, 1994). 하지만 증상 제거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자아존중감이나 정체성의 회복, 사회적응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더 넓은 영역에 관심을 두는(Surgeon General Reports 1999), 강점관점으로 바라보는 양육태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의 경우, 끊임없이 움직이고, 수다스럽고, 부모에게 더 많은 요구를 하는 자녀의 행동은 부모가 자녀에게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든다. 이러한 아동의 주양육자인 어머니는 더 많은 통제와 노력을 자녀 양육에 소비하게 된다. 주양육자인 어머니가 아동을 병리적인 관점에서 대하느냐, 질병을 가진 상태에서라도 희망과 성장을 통해 양육하는 강점관점으로 대하느냐는 (Rapp ; 2006) 중요하다. 경험은 태도를 변화시키는 (Angiullo, Whitbourne and Powers, 1996)데 아동의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아동이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과 삶의 목적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경험이 된다. 그러므로 ADHD 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들이 병리관점에서 강점관점으로 변화의 전환점을 새롭게 구성하는(Allvin et al., 2007: 557)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상의 본질 구조를 탐구하고 밝혀내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ADHD 아동이 가지고 있는 결함과 그로 인해 생겨난 문제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개입방법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연구 되어왔다. ADHD 아동의 강점관점에 초점을 둔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ADHD 아동의 강점을 찾는 과정에서 영향을 주는 어머니의 양육경험의 본질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양적연구에 치우쳐 있어 자녀에 대한 가치와 철학의 의미가 다른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측면이 많다. ADHD 아동을 양육하는 경험 속에서 양육의 본질을 그들의 입장에서 강점관점 측면에서 현상학적으로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ADHD 아동의 양육 과정의 본질과 구조를 강점관점으로 탐색하고자 하는 연구는 그 의의가 크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강점관점의 측면에서 ADHD 아동의 양육경험을 탐색하여 ADHD 아동과 부모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재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ADHD 아동 양육 경험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떻게 ADHD 아동의 강점을 찾아 나가고 있는가?'이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ADHD 아동의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중심적인 현상은 무엇인가?

둘째, ADHD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ADHD의 의미는 무엇인가?

셋째, ADHD 아동을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강점의 본질은 무엇인가?

2. 문헌고찰

1) 강점관점

강점관점은 사회복지실천의 역사와 더불어 계속되어져 왔지만 이는 체계화된 접근법은 아니었다. 최근의 사회복지실천방법은 강점관점으로 변화하는(Saleebey, 1996: 297-298)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의 심리분석적인 접근법들이 개인,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의 병리, 결핍, 문제, 비정상, 피해, 무질서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Saleebey, 1996: 297-298). 즉,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나 상태를 지각하는 것으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말한다. 정신과적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빈곤, 외로움, 성취달성을 위한 한정된 기회, 차별, 억압이 지속되는 것이 두드러졌다. 그런 가운데서 원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최근의 변화인 것이다(Rapp : 2006:3).

강점모델과 손상모델의 차이점은 꿈, 능력, 자신감, 지위, 높은 삶의 질, 자원, 사회관계, 기회 등에서 차이가 난다(Rapp, 2006: 51-53). 강점관점은 보다 만족스런 삶을 창조하는 클라이언트 자신의 세계, 문제, 영감, 강점을 찾아내도록 격려함으로써 클라이언트를 임파워하려고 노력한다(De Jong & Miller, 1995: 734). 또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는 회복력과 엄청난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는 레질리언스, 자신의 치유능력(Saleebey, 2001: 185; Saleebey, 2002: 11)을 신뢰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역량강화' 또는 '권한부여'라는 개념으로 소개되었으며(양옥경 · 김미옥, 1999) 실천현장과 교육현장에서 클라이언트와 좀 더 인간적이며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 강점관점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다양한 인구집단에 강점관점을 적용하고 효과성을 알아보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들(Early, 2000: Cox, 2001에서 재인용: 306-307)이 있으며,

연구결과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관리에서 강점을 기초로 하는 접근법이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Rapp,1992: 45-47; Kisthardt, 1992: 59-82). 최근 한국에서는 강점관점을 적용하여 사례관리의 효과를 나타낸 일련의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노혜련·유성은, 2007; Roberta G. Sands·신혜중, 2008; 한혜경, 2009; 김수영·노혜련,2011). 특히 강점관점으로 본 조손가족 아동의 경험에서는 '삶에 대한 도전에 응하도록 하는 자발성'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Roberta G. Sands·신혜중, 2008), 강점관점 사례관리는 빈곤가족이 의존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변화의 시작이라고 하였다(김수영·노혜련, 2011). 즉 삶의 경험속에서의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강점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 ADHD 아동과 ADHD 아동의 양육

(1) ADHD 아동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는 최근 소아청소년정신의학영역뿐만 아니라 교육, 사회복지영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ADHD 장애는 미국 학령기 아동의 약 3-7%(APA, 2000), 임상 의뢰된 아동의 약 23-50%가 진단 받을 만큼 흔한 장애이며, 학습장애(25-50%), 적대적 반항장애(35%), 품행장애(26%), 불안장애(26%), 우울장애(18%)등을 수반할 수 있어 개인의 삶에 지속적이고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장애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체 조사 결과로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급당 ADHD 학생의 분포가 8.6%, 소아정신과 외래 장애아 중 8.7%와 일반아동의 7.6%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ADHD 아동의 유병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국내의 ADHD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ADHD 아동에 대한 검사 및 척도 개발 연구(김민동외, 2007), ADHD 아동의 행동을 완화시키거나 사회관계를 도와주는 치료 프로그램 및 개입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유지영·김춘경, 2008; 윤미연, 2008) 등이 이루어졌다. ADHD 아동을 강점관점으로 보고자 하는 연구(이영나, 2006; 이미아, 2008)들도 최근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나 ADHD 아동의 성향과 창의성과 유능감의 관계 정도를 보는데 그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는 ADHD 아동의 강점을 찾아 아동이 스스로 사회적응을 하도록 하는 연구(Cramond, 1995; Hartman, 1997; Scorgie & Sobsey, 2000; Rapp ; 2006; Jans 외, 2009)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ADHD성향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동이 문제를 야기할 것을 우려하여 아동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시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동의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아동을 긍정적인 면으로 보았을 때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관심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Hartman, 1997). 창의적으로 자라거나 자신의 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높은 에너지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Davis, 1996) ADHD 아동의 특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관점은 상당히 중요하다. 미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매우 창의적이면서 동시에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과 충동성을 보이는 아동의 사례들을 확보하여 ADHD 아동의 창의성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Cramond, 1995).

(2) ADHD 아동의 양육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보편적인 태도와 행동을 말하는 것이다(Becker, 1964).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와 자녀 관계의 질을 결정하고, 자녀의 지적, 정서적, 성격적 세 측면의 발달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Schaefer, 1961). Halverson은 부모에 대한 기억이 현재의 정동(affection)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가 아동의 내외통제신념의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었다. Rodriguez Vega 등은 역기능적인 부모의 양육 태도는 성인에서 친밀한 대인 관계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문유선·김도훈, 2001 재인용).

Campbell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을 가진 아동 가족의 상호작용을 보면 과제수행 동안 부모에게 상호작용을 더 많이 시도하며 과제가 어려울수록 상호작용의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때의 상호작용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아니라 대부분 과제를 스스로 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지하는 경향에 의한 것으로 과제수행 시간과는 달리 자유놀이 시간에 부모와 상호작용의 빈도가 낮았고, 불순종하는 행동도 나타났다고 하였다(강현정, 2006). 이런 부정적인 상호작용은 부모와 자녀간의 인간관계와 상호작용 패턴에 영향을 주어 가정 밖에서의 사회적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Mussen, 1979). 그리고 아동은 부모와의 대면적 상호작용을 통해 또래와 성공적으로 사회적 기술을 배우고, 연습하고, 정교화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Islay, O'Neil Calfelter & Parke, 1999; 강현정, 2006 재인용). 따라서 현재와 같은 개인적인 혹은 문화적 갈등상황이 가중될 수 있는 문화변혁의 시대에는 ADHD 해결력이 곧, 학습력과 직결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김민동, 정철호, 이상복, 2007).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관계가 자녀들이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또래공격에 대한 피해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Olweus, 1993).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부모가 자녀의 행동이나 감정 또는 요구에 민감하지 못할수록 또래 관계에서 피해 집단이 되기 쉽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도 있다(Smith & Sharp, 1994). 이는 ADHD 아동을 대하는 양육기술과 관련이 있다. 정신과 의사는 ADHD아동의 증상과 특성을 인식하면서 강점을 찾아내도록 훈련되어 왔지만 부모님들은 ADHD 아동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들 자신의 양육기술에 초점을 맞추어 아동의 다른 면을 보지 않고 아동의 행동에만 초점화하기 때문이다(Findling외, 2009: 83)

ADHD 아동과 부모님의 관계 연구에서는 ADHD 아동의 성향과 부모님과의 관계(이원영, 1983)나 부모의 양육태도와 ADHD 아동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김경남, 2005; 류미아, 2008)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ADHD 아동의 양육경험을 연구한 김형숙(2007)은 근거이론을 통하여 부정, 시도, 폭발, 포기, 수용의 5단계로 양육경험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ADHD 아동의 양육을 강점관점에서 탐색한 시도는 아니었다.

최근의 연구들은 부모에 의한 양육태도가 장애인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론적 관점을 주장하기 보다는 부모의 긍정적 지각 즉, 장애아동으로 인한 정서적 상실과 결핍을 당사자가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의하여 개인내적, 생태체계적 관점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위한 연구를 시도하는 경향이 많다(Turnbull et all, 1988; Scorgie & Sobsey, 2000). 아울러 부모교육을 통한 효과성을 검증하거나(Jans 외, 2009), ADHD 아동 가족을 위한 서비스 욕구에 대한 연구(Kendall, 2005)가 진행되기도 한다.

3. 연구방법

1) 자료수집과 윤리적 엄격성

ADHD 아동의 양육경험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강점을 찾기 위해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총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ADHD 아동 양육의 경험을 단순히 상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험의 본질적 측면, 즉의 미구조를 ADHD 아동 양육경험에서 강점을 찾는 경험에 대한 해석을 공유하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현상학적인 경험을 서술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지역아동센터, 정신보건센터, 학교사회복지 현장의 수퍼비전 제공시 사회복지사들이 ADHD 아동에게 도움을 주고 싶으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고 가족, 특히 어머니들에 대한 도움을 주기가 힘들다고 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연구자는 ADHD 아동의 어머니들이 어떤 형태로든 아동을 건전한 방향으로 삶을 재구성해주시기를 원하며 자녀의 강점을 찾는 노력을 할 것이며 둘째, ADHD 아동의 어머니들이 아동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지만 때로는 힘들고 무기력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셋째, ADHD 아동의 어머니들이 자녀의 강점을 찾는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인식의 부족으로 그러한 경험을 재구성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강점을 추구한 자신의 경험을 인식한다면 아동의 양육경험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연구자의 선이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표본 추출의 적절성을 충족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는 지역아동센터, 정신보건센터, 소아정신과병의원, 학교, We-center 등에서 추천받은 ADHD로 진단받은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아동 부모님으로 추천받았다. 추천 받은 사례는 연구자가 다시 전화를 걸어 연구 목적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 구두로 동의한 부모님을 대상으로 면접하였다.

자료의 충분함을 위해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 심층인터뷰를 하면서 상황 그 자체를 주의깊게 관찰하고 정확하게 서술하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추천받은 참여자 17명 중에서 전화 접촉시 거절하신 두 분을 제외하고 15명으로 1회 면접을 진행하였다. 각 면접은 연구참여자가 원하는 병원상담실, 치료실, 연구자가 근무하는 학교연구실, 프로그램실, 커피숍 등 다양하였다. 1회 면담 진행 중에 1분이 지면상으로 연구물이 나오는 것이 부담된다고 하여 최종 연구참여자는 14명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참여자들에게는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다.

면접은 2010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약 12개월동안 진행되었다. 면접시에는 녹취를 하였으며 연구노트를 작성하였다. 면담은 “어머니께서 아이가 뭔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고 느끼신 시점부터 현재까지 아동에 대해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을 해주시겠습니까?”로 시작하여 어머니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not knowing’의 자세로 진행하였다. 1명의 연구참여자와 1회 면접후 삼일이 지나기 전에 녹취 자료를 읽고 다음 참여자를 만나는 과정을 거쳤다. 그 과정에서 앞의 참여자와 지속적인 비교를 하면서 면접에 임하였다. 14명의 1차 면접이 끝나고 난 뒤에는 어머니들 경험의 대략적인 의미주제를 시간대별로 정리하였다. 이후 2차면접을 진행하면서 정리한 의미주제를 어머니들에게 읽어주었으며 1차면담에서 연구자가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지 등을 점검하면서 어머니의 경험이 충분히 녹아들도록 배려하였다. 이후 같은 방법으로 2차 녹취자료를 완성하고 난 뒤 가장 전형적이거나 예외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3차 면접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ADHD 아동의 치료에 참여하는 정신

과 의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초등학교선생님들에게도 자문을 얻으면서 본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연구참여자들 중 두 분 어머니에게는 의미탐색이 체험과 맥락을 같이 하는 지, 하위구성요소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으면서 자료의 질적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어머니들의 이야기가 보호되도록 기록시 이니셜을 사용하였고, 연구대상자가 되는 게 부담스러울 때는 언제든 그만둘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의 기본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 특성

	명단	아동 성별	최초 ADHD 진단시기	현재 치료상황	동거관계
1	a모	남	초등5/현 중1	집단치료/약물복용	여동생/어머니/아동
2	b모	남	초1/현 초등5	심리치료	아동/누나/아버지/어머니
3	c모	여	초등3/현 중2	미술치료/약중단	남동생/어머니/아동
4	d모	남	7살/현 초4	약물복용	아동/어머니/아버지
5	e모	남	초등3/현 초등6	약물복용	아동/누나/어머니/아버지
6	f모	남	7살/현 초등5	미술치료/약물복용	아동/어머니
7	g모	남	7살/현 초등6	심리치료/약물복용	아동/여동생/어머니/아버지
8	h모	남	5살/현 초등6	-	아동/여동생/어머니
9	i모	남	6살/현 초등6	심리치료/약물복용	아동/여동생/어머니
10	j모	남	3학년/현 초등6	심리치료/약물복용	아동/할머니/어머니/아버지
11	k모	남	초1/현 중1	약물복용	아동/남동생/어머니/아버지
12	l모	남	6세/현 초등3	심리치료/약물복용	아동/누나/어머니
13	m모	남	7살/현 초등5	심리치료	아동/누나/어머니/아버지
14	n모	남	초3/현 초등6	심리치료	아동/남동생/어머니/아버지

2) 자료분석방법

해석학적 현상학은 ADHD아동의 경험이 ‘무엇인가?’에 대한 ‘얕’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아들 경험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에 집중함으로써 이들의 일상생활속에 드러나지 않았던 입장과 경험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박지영, 2010: 205). 그리하여 연구자는 ADHD 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들이 경험하게 되는 어머니로서의 체험속 경험 의미를 이해하는데 있어 최대한 어머니들이 체험한 그대로 기술하려 하였으며 그들이 보는 현상을 통해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ADHD 아동의 양육경험의 본질을 탐색하는 데 있어 생활세계에서 일상의 경험을 통하여 인간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 Colaizzi의 분석방법을 선택하였다. Colaizzi의 분석방법은 참여자로부터 기술된 내용에서 의미있는 문장이나 구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반적이며 추상적인 진술을 만들어 의미를 구성하여 주제목음으로 범주화한 후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기술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험의 본질적 구조의 타당성을 참여자로부터 다시 확인하는데, 이러한 전후 과정은 주제에 그 의미가 반영되어 주제를 편견없이 받아들여지게 된다(신경림, 2004).

연구자도 끊임없이 참여자에게 확인하는 작업을 그쳤다. 분석의 과정에서는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1명, 석사과정 2명, 연구대상자 2명, 질적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동료와 함께 의미를 구성하면서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4. 연구 결과

1) ADHD 아동 어머니의 양육경험 : 완주를 위해 자신과 싸우는 원하지 않은 마라톤

ADHD 아동 어머니들의 양육경험은 '완주를 위해 자신과 싸우는 원하지 않은 마라톤'과 같은 경험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들은 마라톤의 여정속에서도 '그래도 이쁜 내새끼와 함께'하기위한 강점의 본질을 찾아내었다. '원하지 않은 마라톤이지만 그래도 이쁜 내새끼와 함께하기 위한 힘을 찾아가는 여정'임을 나타내었다.

체험은 직접적인 현상에서는 결코 포착할 수 없고 지나간 현존으로서 반성적으로만 포착할 수 있다(신경림, 1994: 57). 그러므로 ADHD 아동 어머니들의 양육체험 의미에 대한 파악은 본래의 풍부함과 깊이를 완전히 포착할 수없는 지나간 어떤 것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체험의 본질은 신비스러운 실체나 발견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현상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ADHD 아동 어머니들의 양육경험에서 의미있는 것을 포착해 반사적으로 되살리기 위해(re-living) 텍스트로 표현하였다. ADHD 아동 어머니들의 양육경험과 의미를 분석하여 텍스트한 주제는 8개, 구성요소는 26개, 하위구성요소는 99개로 < 표 2>와 같다.

<표 2> ADHD 아동 어머니의 양육경험 주제와 구성요소

하위구성요소	구성요소	주제
통제가 안 됨, 산만하다, 또래보다 고집이 세다	독특한 행동	혼란의 연속
한쪽으로 계속 집중, 남들이 안하는 독특한 생각을 많이 함		
폭력이 심함		
엄마의 직장으로 바쁨	엄마의 방관	
심각하게 못 느낌		
아이 행동에 대한 문제점을 흘려들음		
담임이 아이문제로 학교로 호출	아이 행동으로 문제 노출	
친구와의 잦은 싸움으로 친구어머니와 갈등		
유치원 부적응, 친구들과로부터 왕따, 정상적인 학원에서 공부 못하고 외면당함		
자폐인가? 불안해서, 아이가 지나온 상처가 많아서 그런가봐	무지와 두려움	
아빠가 어릴 때 별나서, 늦되는 애들도 있다는데, 우리 집에는 이런 애가 없어		
남자애들은 다 그렇다는데, 아닐거야, 나아지겠지		
말이 느림, 잔병치레, 경기		
담임선생님과 주변 사람의 병원 진단 권유	주변의 권유와 일련의	ADHD

담임선생님이 아이한테 집에 가라고 가방 던지고 화냄	사건	진단의 떡떡함
아이가 성폭행 당함,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 화재로 인한 충격, 아빠의 사망으로 인한 아이의 충격		
마음의 상처를 어릴 때 빨리 돌봐줘야겠다 싶어 병원감	엄마의 적극적 판단	
문제가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가야겠다 싶어 감		
하늘에 날벼락이 칠 정도로 느낌	진단 뒤의 엄마의 충격과 갈등	
의사 선생님 한테 몇 번이나 확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름, 참담하고 암담함		
혼자서 속앓이		
불안감과 우울감		
제만 없으면 내가 풀릴게 없는데, 창피함		
죄책감		
신에게 화가 남		
약물치료, 놀이치료, 미술치료, 자연요법, 심리치료, 집단 프로그램		치료 시작
효율적인 부모교육 받음		
ADHD 에 대한 교육	아이를 위한 엄마의 노력	'엄마' 라 는 운명
ADHD 에 대한 관련 교육에 열심히 참여함		
학부모 임원을 일부러 함, 아이들에게 집을 오픈		
학년 바뀔 때마다 담임선생님 눈도장 찍음		
봉사활동		
아이와의 종교생활, 아이와 대화하는 활동 많이 함		
가족이 함께하는 활동	선생님의 부정적 태도	'총알' 이 며 '은총' 인 선생 님의 '말'
학교선생님의 방치, 무시		
ADHD에 대해 선생님이 잘 모르고 꾸중하심		
먼저 화살이 돌아오는 아이		
거짓말쟁이 아닌 거짓말쟁이	선생님의 긍정적 태도	
선생님과 단합해서 잘 견뎌냄		
좋은 샘을 만나 내가 힘이 됨	함께 병들어 가는 나	원하지 않은 마라톤의 고통
친구들에게도 시원하게 이야기 못함		
가족에게도 비밀로 부침		
심장이 내려 앉을 것같은 가슴의 통증, 늘 울고 다님		
엄마도 심리치료와 정신과 약물 복용	경제적 부담	
진단비가 너무 비쌌		
프로그램비혹은 약값이 경제적 부담이 됨	가족들로 인한 이중고	
아빠와 싸울 일이 더 많아짐		
가족들에 대한 섭섭함, 시대과의 갈등과 섭섭함		
너무 무심한 아빠		
피해를 받는 또 다른 내 아이		

아이를 열 키우는 것과 같다	아이로 인한 고통의 연속	
너무 많이 속상해서 애가 미워지기도 한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고통이 마라톤 같다		
약물 중단, 총명탕 먹임, 치료실패에 대한 반복		
좋게 말로 하자	긍정적 · 부정적 양육태도의 혼재	
반복해서 주입		
차이를 발견해서 인정		
칭찬을 많이 해줌, 많이 안아줌, 사랑한다고 자주 말함,		
매를 때리기도 함, 혼내놓고 돌아서서 후회함	또 다시 추스르는 엄마	
부모가 빨리 인식해야 아이가 치료될 것이다.		
ADHD 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해야 겠다		
이제부터 전쟁이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이 아이는 절대 안된다		
엄마의 활발한 성격	엄마의 긍정적 사고	그래도 긍정적으로
이 병은 불치병이 아니다.		
아이가 바뀌는 부분에 대한 감동		
더 힘든 엄마들도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무 대견해		
치료를 받으니까 지금보다는 좋아질거다		
나한테 맡겨진 아이이다		
자식이니까 책임을 가져야 한다		
이 애 아니면 더 힘들게 살수도 있었을 것이다		
일년에 하나는 좋아질거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아이이다.		
그래도 학교를 안 가겠다고 한 적이 없다		
나한테 관심받고 싶어 애교를 많이 띤다		
아이의 마음이 따뜻하다		
아이가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다		
아이가 엄마한테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 한다		
먹을 게 있으면 엄마 먼저 챙긴다	아이의 이쁜 점을 찾아가는 엄마	
사회봉사 활동		
직장생활		
친구와의 수다, 쇼핑, 노래부르기		
친정엄마와 가족의 지지, 아빠의 도움	가족의 지지	버텨내는 힘
종교적 믿음, 종교활동으로 만난 사람들의 도움		
학교선생님의 도움, 학교사회복지사의 도움		
의사, 심리 상담가와의 만남		
복지관 프로그램의 도움	전문가 지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좋아졌다고 함, 아이가 조금씩 나아져 감		

아이가 내 마음을 이해함	주변 가족의 지지와 희망	행형이지만 '그래도 이쁜 내새끼'를 위하여
아빠의 변화에 내가 편해짐, 아빠의 치료 참여		
친정가족의 도움		
다른 아이 보고 힘낸다		
애 때문에 가족이 더 많은 대화를 함	희망과 불안의 교차	
아이의 변화에 엄마 욕심이 늘어남		
또 다시 방치		
다른 갈등요소 생김		
아이의 미래에 대한 불안		
아이의 미래에 대한 희망		

(1) 혼란의 연속

ADHD 아동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어릴 때 통제가 안되고 산만하며 폭력이 심한 독특한 행동을 하는 것을 심각하게 못 느끼다가 아이의 행동으로 문제가 노출이 되자 두렵기도 하였지만 남자애들은 다 그렇다는 위안으로 무시하거나 부정하고 넘어갔다. 내아이가 '남들보다 나은 아이'가 되기를 원했는데 '남들과 같은 아이', '남들보다 못한 아이'라서 그저 속상해하였다. 하지만 웬지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

① 독특한 행동

ADHD 아동들은 남들이 안하는 독특한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산만하거나 통제가 안되는 행동들을 하여 어머니들을 당황하게 하거나 키우는게 힘든 아이로 기억하고 있었다. 특히 '빠져있고' 하는 행동이 아동의 집중인줄 알았는데 오히려 ADHD라는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통제가 안되고, 엄마가 계속 빌어야 하는 상황을 만나면서 더 망막함을 느끼게 된다. 더욱 가슴 아픈 점은 아이도 '안 그러고 싶대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며,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로서 마음이 미어짐을 참여자는 경험한다.

통제가 안되죠 일단 통제가 안되고 우리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년에 올라가면서 선생님한테 대들었어요 욱도하고 쌤한테 욱하고 대들고 막 이런일이 생기니까 결국에는 뭐 제가 쌤한테 맨날 빌었죠 죄송하다고(k모 4-13)

안 그러고 싶대요 안 그러고 싶는데 지도 모르게 자꾸 된대 화만나면 왜 이렇게 되고 가만히 있는데 내 손이 왜 날라가고 이렇게 감정대로 머리와 몸이 같이 안 움직이냐고 ... (3모 7-28)

② 엄마의 방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들은 아이가 심각하다고 못 느끼거나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흘려들었다. 적어도 아이가 관심분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별 문제가 없다고 느껴지기도 했다. 특히 참여자의 직장일로 신경을 못 쓰는 동안 아이가 보낸 메시지를 알아채지 못하고 흘려버린 점은 죄책감을 느끼게도 한다.

유치원에서 무슨소리를 하면은 지 뜻대로 안되면 뜯고 지 친구를 때리고 막 물고 또 쌤이 어떤 이야기를 할때 집중해서 앉아 있지를 못하더라구요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지관심분야에 눈에 들어오는 책을 읽으면 쌤말은 무시하고 책만읽고 그러한 행동들이 나오길래 저도 그렇게 심각하게 못 느꼈죠(1모 1-8-9)

혹시나 모르니까 한번 이 발달을 한번 촉진해보자라고 저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흘려들었어요 그때 말을 했기 때문에.....응 거기서 몇 달 다니다가 이제 흘러버리고 ... 이제 직장 왔다갔다 해야하니까 신경을 못쓰겠더라고(2모 3-11)

③ 아이 행동으로 문제노출

아이의 문제행동이 심해지면서 담임의 호출을 받거나 친구와의 잦은 싸움으로 친구엄마와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 학교에서 아이가 왕따가 되기도 하고 일반학원에서 받아들여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기껏해야 '5분'도 앉아 있지 못하는 내 아이에 대해 더 답답함을 경험하게 되고, 아이를 위해 '학원도 옮기고, 이런것도 다 했는데' 참여자는 지쳐가고 있었다. 오히려 참여자가 죽을 것 같이 지치고 힘들어짐으로써 짐을 내려놓게 되었다.

아가 너무 산만하니까 산만하다가 잠시라도 가만히 있다가도 5분 안있고 나갈수가 있자나 뛰쳐 나갈수가 그걸 좀 잡기 힘들더라고 5분 이상 더 이상 못 앉아 있으니까 뛰쳐나가니까 선생이 내를 부르는 거야(c모 1-24)

내가 어릴때 애를 혼자서 케어를 해볼려고 했죠 그때는 아빠가 그렇게 모를때는 그때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할려고 학원도 내가 옮기고 내가 하고 이런것도 다 했는데 나도 지친거예요 지치고 나도 병원에 갈 정도가 되놓으니까안그러면 내가 죽을것 같은데(m모 7-13-18)

④ 무지와 두려움

참여자는 아이의 행동이 노출되어 문제가 되었음에도 아빠도 어릴 때 별났다거나 집안에 그런 아이가 없다던가, 남자애들은 다 그렇다는 이유로 그 사항들을 무시하였다. 그러나 엄마들은 완전하게 무시했다기 보다는 병에 대해 잘 몰라서 인 경우도 있고, 사는데 바빠서 신경을 못 쓴 경우도 있었다. 두려움때문에 아예 무시해버린 경우도 있었다. 참여자는 아이의 상태에 대해 어쩌면 애써 무시하고 싶었는지 모른다.

우리 집에 그 뭐 딸래미도 잘하고 아빠도 잘하고 애 하나만 그러니까 우리집에는 애 하나만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도 잘하는것도 바라지도 않아요 공부도 뭐 영어뭐 이런거 공부 그런건 신경도 안써요 (m모 7-22-25)

아빠가 사실은 어렸을때 굉장히 많이 별났데요 애 아빠는 지금과 비교하면 양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에서는 애가 별나고 이런거는 별로 문제가 안됐었어요 그정도 별난거는 남자애가 안되겠나 이랬는데 (e모 2-9)

(2) ADHD 진단의 먹먹함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진단을 받게 되면서 어머니는 그저 먹먹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① 주변의 권유와 일련의 사건

어머니들이 진단을 받게 된 계기는 뜻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참여자인 어머니가 인지하고 평소에

궁금해하던 일이 아니라 주위로부터 조심스러운 권유를 받거나 다른 아이와 비교해서 이야기되어졌다. 하지만 사고나 화재, 성폭력 등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아이의 다른 면을 치료하러 정신과를 찾았다가 진단을 받게 된 경우도 있었다.

초등학교 3학년때 담임선생님이 우리 애한테 집에 가라고 가방 던지고 화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애한테 그 얘길듣고 너무 당황스럽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담임선생님한테 근데 그 선생님이 말 하시길 어머니께서 전화주실줄 알았다면서 n이 학습준비가 안되어 있고 항상 수업할 때보면 불안정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후 병원을 가게 되었는데 솔직히 병원이기 전까지만 해도 선생님이 좀 버리기도 있고 이상했기 때문에 애를 잘못 판단했을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병원이기전까지 아닐꺼야 라고 했는데 막상 병원을 가니깐 애가 ADHD라고 하는거예요(n모 1-6)

다른 엄마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c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비슷하것 같다(i모 2-7)

② 진단 뒤의 엄마의 충격과 갈등

엄마들은 아이가 ADHD로 진단을 받고 난 뒤 엄마 스스로도 스트레스를 받고 충격을 받았으며 아이에 대한 죄책감과 참담함을 호소하였다. 오히려 믿기지 않아서 '맞습니까' 연신 확인해야 했고, '정상'이 아닌 내 아이에 대해 화가 났고, 암담한 마음이 들고, 어떻게 되어야 할지 모르겠고, 이 모든 것이 참여자로부터 빛은 결과라고 생각까지 들어서 감당할 수 없었고, 오히려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래 내가 몇 번 선생님한테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니까 맞다고 그렇게 얘기 그래서...(d모 6-16)

ADHD애를 가지고 있는 엄마들은 첫째로는 나도 그런 과정을 겪었지만 엄청 속상하고 화가 나오 엄마자체가 화가나오 왜 내가 애가 정상인 애 같으면서 아닌게 화가나오(m모 15-24)

제가 어렸을때부터 제가 판단하고 제가 결정하고 일을 하는 게 습관이 되어있어서잘 몰라도 그래서 애들이 저렇게 되버렸나 생각도 들고 너무 죄책감이 들어요(n모 3-13)

처음에는 모르겠고 마 암담하더라도요 암담하더라도요... 도와주지도 못하겠고 어떻게 해야할지 막 그려는 거라...(c모 9-39)

(3) '엄마'라는 운명

그러나 엄마로서 가만 있을 수가 없어, '남들과 같은 아이'가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치료를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은 아이에 대한 치료의 의미보다는 엄마의 죄책감을 보상받고 불안을 해소하는 시간이었다.

① 치료시작

참여자는 아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몰라 기본부터 출발했다. 병원을 학원으로 받아들이고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해야 하는지 듣고 배우는 과정을 거쳤다. 또, 비록 약에 대한 부작용이 있지만 그래도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선택해야 했고, 놀이치료와 책을 보거나 부모교육을 받는 등 엄마로서 해볼 수 있는 노력을 시작했다. 당장의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저 좋아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면 시작해야 했다. 그게 지금까지 아이의 치료를 놓친 것에 대한 죄책감과 보상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부모교육을

받으면서 여태까지 내가 아이에게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인식하면서 아이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에 견딜 수가 없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엄마들은 자신만의 힘든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약을 먹이면서 잠도 안자고 부작용도 있잖아요 그래도 해야된다는게 첫 번째가 그게 약이더라고 보니까 왜냐하면 그게 제가 말로 이렇게 해도 일단 약물로서 도움을 받고... 2학년때부터 놀이치료를 했거든요(1모 5-34)
ADHD 책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책도보고 교육도 이렇게 교육도 할려고 하는게 아니라 학교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봤었고 지금 거의 **가 6살 7살부터 다녔잖아요 병원을 저는 거기가 학원이다 생각을 하고 부모교육을 애 수업끝나고 나면 부모 상담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많이 배운것 같고.. (1모 11-11, 1모 13-18유사)

② 아이를 위한 엄마의 노력

그저 막연히 다른 것을 선택할 것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할지도 몰랐다. 그저 내 '숙제'라고 받아들여졌고, 조금씩만 나아진다면 무엇이든 선택해야 했다. 특히 전문가가 아닌 엄마로서 '따라가야겠다'는 마음으로 한 가닥 희망이라도 붙잡고 가야했다. 내 아이를 위해서 엄마로서 해볼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이든 해야 했다. 일단 주변사람들과 원할한 관계를 가져야 했는데, 우선 임원을 출선수범하여 말아야 했다. 그래야 '덜 뭐라할거'같기도 하고, 엄마를 통해 애들로부터 이해를 받기를 희망했고, 다른 엄마들도 일부러 챙기면서 내 집을 오픈해서 지내는 노력을 해야 했다. 이것이 힘없는 아이를 대신하여 참여자인 엄마가 할 수 있는 노력이고, 이런 노력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야 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주위로부터 관계 속에서 잘 지내는 것을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하였다. 여기저기서 인정받고 지지받음으로서 아이의 정서적인 안정을 꾀하는 노력도 중요한 일이었다.

이거는 앞으로 크게 이끌어 나갈 내 숙제가 싶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따라야겠다 그냥 그래서 약물 같이 먹이면서 부작용도 많이 있고 했었지만 그 조금씩 나아지는게 보이더라구요 (1모 1-37)
엄마들간에 이 내 아이가고 학교에가서 이렇게 우리 아이가 왜 아이가 왜 잘 되어야지 임원이라든지 이런거 하잖아요 저는 그 반대로 학교생님이 야 구박할까봐 그래서 일부러 임원을 했었어요 (1모 12-29~33)

이 애 때문에 다른데 가서는 더욱더 애를 내갈은 경우에도 동네 일을 많이 보 볼 수밖에 없는게 우리 **이 한테 좋아지는거라 그러니까 야 느그애가 지금 어디에 있더라 딱 없으면 바로바로 전화가 오고 친밀하게 해 놓으니까 ... (1모 4-12~15)

(4) '총알'이며 '은총'인 선생님의 말

'ADHD 아동의 엄마'가 낯선 엄마들은 아이 담임의 말 한마디에 '갈대'처럼 흔들린다. 거센 바람을 맞을 준비가 안 된 엄마들은 '바람'에 대처하기보다 자신때문이라고 처지를 한탄하며 따뜻한 바람만을 기대하게 되었다. 남에 의해 변화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① 선생님의 부정적 태도

아이한테서 선생님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

님의 태도는 아이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오히려 선생님들이 보여주는 태도는 꼭 그렇지 만은 않다. 오히려 아이를 ‘방치’하거나 ‘결립돌’ 취급을 받거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먼저 화살이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게다가 친구들과 싸웠을 때도 아이가 자신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결과를 경험하며 ‘거짓말쟁이 아닌 거짓말쟁이’가 되는 경험을 한다. 그럼에도 엄마들은 선생님앞에 가서 죄인 아닌 죄인이 되는 멍멍함을 경험하고 아이와 함께 울부짖기도 한다.

지가 표현을 예를 들어서 욕은 안했는데 손짓을 했다거나 뭐 글로적었다거나 이런것들이 들켜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이제 그런걸 이제 옆에서 그러니까 애가 저거를 하면 옆에 애들이 고자질 아닌 고자질 처럼 먼저 애를 걸고 넘어지는거죠 좀 약간은 그렇다보니까 왜 어떤애가 바르애가 어떤 뭐조금 잘못을 해도 뭐 재가 그랬겠나 이런식이잖아요 애가 분명히 했는데도 재가 그랬을까?잖아요 그런데 우리야는 지가 안했는데도 재가 했을 것같애 이런식이 되니까 항상 지한테 먼저 화살이 돌아오는 거죠(k모 8-27~31)
친구들하고 싸웠을 때 선생님이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됐냐라고 지가 이야기 할까? 하면 지말하고 그 상대방말하고 말이 안맞는거예요 뭐 애도 지 나름대로 지는 지대로 지한테 피해 안볼거라고 유리하게 이야기 했을 거고 결국에는 지가 거짓말쟁이 아닌 거짓말쟁이 되고 또 거짓말이 섞인 부분도 있겠죠(k모 9-5~9)

② 선생님의 긍정적 태도

생각지 못한 선생님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지지는 참여자에게 힘이 되었다. 오히려 너무 좋은 샘을 만나서 상담도 하고 마음의 위로도 얻게 되었다. 오히려 참여자보다 선생님들이 단합을 해주셔서 참여자에게는 엄청난 지지로 기억되고 있다. 참여자는 ‘너무 좋은 선생님’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참여자들은 선생님의 긍정적 태도가 참여자와 아이로 하여금 ‘가고 싶지 않은 학교’에서 ‘가고 싶은 학교’로 만들어주며, 선생님을 벼랑 끝의 수호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애가 많이 놀래고, 애가 억수로 산만해여.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어,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돌아다녔어요. 다행히 선생님을 학년마다 선생님들을 너무 좋은 선생님들만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단합이 된거죠 (f모 2-17~20)

키우는 과정 초등학교 내내 울고 다녔거든요 일주일에 두 번씩 샘이 오라고 하니깐 샘이 담임 샘을 너무 좋은 샘을 만나가지고 제가 울면서 계속 상담을 받아도.... 학교를 거의 같이 갔어요 (l모 2-31~33)

(5) 원하지 않은 마라톤의 고통

아이를 키워가는 과정은 한마디로 ‘고통’이었다. 그러나 한달음에 달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그야말로 마라톤 같은 긴 여정이고, 힘든 여정이다. 그것도 내가 원해서 마라톤을 하는 것도 아니다. 아직은 마라톤의 끝을 예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상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냥 이제 받아들여야 하는 마라톤코스인 것이다. 도착점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마라톤을 하고 있음을 힘들어 했다. 이것은 ‘신’이 할 수 있는 여정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원하지 않은 마라톤이지만 할 수 밖에 없는 여정이기에 주변의 우려와 칭찬이 버겁기도 하고, 달리는 자체가 힘들다. 숨이 턱에 차고,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닌 것처럼 힘든 이 길을 그만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달리고 있는 내가 대견하기도 하다. 힘들지만 주변의 경치가 아름답기도 하다. 즉 엄마와 가족이 병들고 갈등하는 힘든 마라톤 출발은 아이를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주지만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과정이었다. 이 경험을 통해 아이에게 꾸중을 하여도 이유를 설명하게 되었고, 칭찬을 하기 위한 칭찬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칭찬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어 갔다는 것이다.

① 함께 병들어가는 '나'

남들과 다른 내 아이, 아픈 애 아이가 남들 앞에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 가족 외에는 잘 이야기할 수 없는 대상이고, '자존심'이 강한 것으로 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다. 참여자에게서 아이의 아픔은 참여자의 아픔이고, 이것은 결국 '자존심'과 같은 상징적인 경험이 되는 것이다. 아이의 아픔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무척이나 힘든 과정이었다. 그러나 아이의 아픔을 돌보는 동안 참여자는 '코피'가 나고 '화'를 내고 '울고'다니고 '창피'한 경험을 하였다. 그러면서 점점 더 참여자들도 병이 들어가고 있었다. 이를 극복해보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지만 참여자에게서 '풀리지 않는 숙제'로 기억되고 '심장이 내려앉는 것'같은 경험이었으며, '가슴에 통증'이 남아 있게 되고, 여전히 자신을 다듬는 노력은 한마디로 '감당하기 힘든 충격'과 같은 경험이었다.

친구들 만나도 제가 시원하게 이야기를 못하거든요. 저도 자존심이 남들 보다는 강한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외에는 이런 이야기를 잘 안해요.....저는 그게 힘들어요자꾸 마찰이 생기잖아요 나도 화를 내고 지도 화를 내고 이게 풀리지 않는 숙제 그게 젤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는 약간 스트레스 병처럼 가슴에 통증을 느끼거든요(9모 7-12-13, 3-22)

심장이 내려앉은것 같았어요 재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밥먹다가 코피가 나고 제가 콧물이 나오는지 알고 보니까 쌍코피가 나오고 ...(6모 7-22,23)

정신과 치료를 애 때문에 받았어요 나도 정신과 약을 먹었어요 엄마는 뭐 강해져야 한다고 하는데...(1모 13-18)

② 경제적 부담

아이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고 대처해 가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부담은 참여자를 더욱 죄책감에 빠지게 하는 것 중 하나이다. 부자집에 태어났으면 좋은 치료 충분히 받을 건데..라는 생각이 들면 아이에게 더 미안하고 세상이 원망스럽기도 하였다. ADHD치료 과정에서는 많은 치료부담으로 인해 이증고를 겪는 경우가 많았다.

처음에도 검사비를 학교에서 대주고 어렵다고 이래가지고 어려우니까 사정을 아니깐 검사비는 학교에서 대주고 이제 내가 왔다갔다 내는 치료하는 약값은 내가 다 하고 지금은 인자 병원에서 좀 사정을 알고 이제 디씨 30%정도 해가지고...(6모 1-21)

③ 가족에 의한 이증고

아이가 아픈 것에 대해 엄마는 스스로 갖는 죄책감이 무척이나 크다. 그래서 어디 한군데라도 엄마를 지지해줄 곳이 필요했다. 그러나 가족마저도 엄마에게 지지가 되지 못하였다. 오히려 어머니를 '별나게'보는 시각이나 '설명이 안되거나' '다 그런것'으로 치부하거나 '도와주지 않는'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일, '느그 알아서 해라'라는 떠맡김, '아 못키웠다'라는 책망은 오히려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는 일로부터, 내 아이를 돌보는 일로부터 힘들게 하는 경험이었다. 이러한 경험은 가족들로부터 겪는 '이증고'이고 이러한 이증고는 참여자의 생활 곳곳 틈틈히 숨어 있는 경험들이었다.

...견딜수 가 없어서 아빠랑 많이 싸웠었고 ...저역시 우울증이 그런거에 대한 우울증이 오고.... 내가 왜 자식이 도대체 뭐길래 내 인생이 어디에 있는거야. 내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인정이나 보상은 커녕 애들한테 이런 걸 받아가면서 도대체 나는 열심히 했을 뿐인데 뭘까? 내가 정말 별난가 땡까 나는 뭘 잘못 했을까(e모 5-35)

④ 아이로 인한 고통의 연속

아이로 인한 고통은 단거리가 아닌 긴 여정의 마라톤이다. 이 마라톤은 쳐지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는 과정을 겪어야 하는 시간이다. 그러나 이 긴 여정동안 아이도 지쳐가고 힘든 시간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혼자 서 있는 엄마는 아이의 '되풀이'하는 행동을 보면 스트레스가 되고, 이런 경험이 반복 되면 '화딱지'가 되기도 한다. 어떤 때는 작은 애 말을 더 신뢰하게 되기도 한다. 엄마도 머리로는 그렇지 않지만 너무나 속상해서 아이가 미움의 대상이 될 때도 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약을 먹이는 것이 좋지 않다는 생각에 약을 끊고 다른 방법을 취해보기도 하였으나 실패하고는 또 약을 먹이는, 고통을 안고 앞으로 전진 할 수밖에 없는 사형임을 힘겨워 하였다. 이제 엄마는 내 아이를 키우는 경험속에서 내 아이가 '특별'하다고 생각한다. 특별하다는 것은 남보다 뛰어나다는 의미보다는 남과 다른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차이를 통해서 '내 아이'에게 적절한 지도방법을 찾고 있는 과정이다.

그 애가 뭘을 뭘 지적을 하면 그게 안고치지더라고 이상하게 딴 아들 한번 하지마라 하면 안해야 되는데 계속 되풀이 계속 그거를 반복을 하더라고 애가 그러니까 나도 스트레스 쌓이면서 볼 때마다 머 하지마라 하지마라 소리 자꾸 하게 되는 거라. 하나 키우는게 아니라 몇 명 키우는 거 같죠.(d모 2-31)

... 내 짧은 생각에 2-3년이면 안 좋아지겠나 내가 이 정도로 애를 썼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역시도 사실은 나야 좋아진거지 지금부터 어떻게 유지가 되는가 또 몇 년이 걸지 또 의사선생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제가 해야되야 하는 부분들인데 끊임없이 하는 게 꼭 마라톤 같아요 마라톤 달리기로 치면 단거리 장거리가 아니고 이게 해놓고 쉬었다가 또 아니면 다시 쳐겨가지고 또 고쳤다가 또 쉬었다가 힘들면 그러니까 (f모 7-9,10)

⑤ 긍정적, 부정적 양육태도의 혼재

엄마는 아이를 키우면서 절대적인 진리를 배우게 된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이 아이는 못 바뀐다'라는 점이다. 아이를 다룰 때 좋게 다루어야 되겠고, 특히 '말'로 다루어야 되겠고,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경험하였다. 엄마가 하는 긍정적인 양육태도로 실천하고 있는 점은 바로 '다시 한번'이나 '반복', '몇 번씩', '인자 이야기해보라'는 적극적인 반복을 유도하고 있다. 아픈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그러나 엄마가 변화하는 양육태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한 가지는 '칭찬'이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였다. 내 아이를 많이 '끌어 안아주고' '칭찬꺼리 많이'해줄라고 하는 노력은 내 아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그러나 이런 노력이 의도를 가지는 것만은 아니다. 그저 '내 아이'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엄마가 자녀를 위해 노력하는 것 중 또 다른 하나는 '대화'이다. 때로는 엄마가 사랑을 못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도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일상생활에서 학교를 다녀오고 하는 과정에도 '사랑'을 전달하려고 한다. 이런 과정은 아이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생각에 더 많이 노력하기도 한다. 내 아이에게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시간이다. 오히려 '습관'이 될 정도로 애정표현을 하고 있고 아이는 '보너스'라고 표현한다. 엄마는

의도적으로라도 '사랑의 표현'을 하려고 애를 쓴다. 이 과정이 엄마와 아이를 이어주는 끈이 되기도 하고, 아이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키우면서 긍정적 양육태도만을 가질 수는 없다. 엄마는 답답한 마음에 매를 들기도 한다. 그러나 엄마는 매로 아이가 상처받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다만 '지가 뭘 잘못했고' '아한테 쫓 좋다고 하더라구'하는 믿음에서 매를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막 짜증'이 나기도 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 장애가 있는 없든 아이를 키우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엄마가 '매'를 때린 행동만으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엄마'들이 그동안 노력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한편으로는 '매'를 드는 엄마에게 '분노 조절'이나 '쉽'과 같은 것이 어찌면 더 필요 한지도 모른다. 자식을 혼내는 일은 모든 부모에게 '후회'되는 일이다. 무엇보다 '가슴이 아픈' 일이다. 이제는 아이가 버거워서 이전보다 고집이 '썰서' 매를 들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도 엄마는 아이가 '왜 엄마가 매를 드는지' 이해해주시기를 바라게 되고,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이 아이는 못 바뀐다 그러고 내가 바뀌기 위해 행동을 대하지 않으면 애는 안 되겠다ADHD 아키우는 엄마가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역할이 정말 애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게 다른 사람하고는 틀려질 수밖에 없는게 틀려져야 애가 변화를 왜냐하면 특별하기 때문에 다른 애랑 틀리기 때문에 그 차이를 빨리 발견하고 인정해서 어떻게 자식한테 말하는 방법이나 어떻게 이런 상황에 소리를 안지 르는가를 제가 가르쳐주거든요(1모)

아빠 없으니깐 안 때릴려고 나는 대화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사랑을 못주는갑다 싶어서 사랑한 다 그런 소리도 많이하구 우리아들한테 그러거든요그러면 좀 나아질까봐요즘은 많이 나아진것 같애 요 예전에 비하면(2모)

내 스스로 너무나 힘들어서 엄마가 이렇게 힘든데 애는 또 얼마나 힘들 겠어요 그래 가지고 혼내놓고 뭐라 해놓고 화내놓고 돌아서면 후회하고 그런게 매일 반복해요 내가 돌아서서 후회할 때도 제가 또 가슴 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학교 보내고 나면 가슴아프고 잠들고 나면 또 미안하고 내가 너무 어른답지 못 하구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3모)

(6) 그래도 긍정적으로

마라톤의 여정을 시작하기전 연구참여자는 여자로서 '활동적'인 성격으로 대인관계가 나쁘지 않지만 '예민'하기도 하며, '이해력'이 높기도 하고 '단순'하기도 하고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엄마이기 때문에' '내 새끼를 위해' 다시 추스를 수 있었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 마라톤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아이와 엄마에게 무척이나 필요한 경험이다. 엄마는 원하지 않은 시작이었지만 이왕 마라톤을 시작한 이상 '아이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완주를 해보기로 한다. 그러한 마음을 먹는 순간 아이의 이쁜 점도 보이고 감사하다는 생각도 든다. 그리고 완주를 하기 위해 힘을 낸다. 이 시기가 Allvin과 동료들(2007)이 주장한 병리관점에서 강점관점으로 변환의 전환점을 새롭게 구성하는 시점으로 보여진다.

① 또 다시 추스르는 엄마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는 다시 추스르게 되고, 정리가 되는 시간을 가진다. 엄마가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하는 시간이고,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해야 한다. 무엇보다 엄마 스스로를 대견

하게 여기기도 한다. 내 아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바뀌어야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 4년째 해오는 과정 동안 '아픈 애기'로 받아들여야만 엄마는 기나긴 여정을 함께 갈 수 있고, 버틸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믿음은 결국 아이를 변화하게 하는 힘이 되었고, 결국 엄마가 버티어 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있다.

사실 저는 많이 괴로웠거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지금부터 시작이네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아 이제부터 전쟁이다 시작이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이 아이는 못 바뀐다 그러고 내가 바뀌기 위해 행동을 대하지 않으면 애는 안되겠다 내식대로 다루면 보통 일반적으로 엄마가 이런식으로 바뀌지 않으면 달라지거나 바뀐다는게 보통 애들도 그렇지만 좋게 다루어야 되겠고 달로 해야되겠고 더 많이 한번 이 야기를 해야될것을 다시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잘 잊어버 리더라구요(1모-6-29)

② 엄마의 긍정적 사고

아이의 아픔이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아닌 '고칠 수 있는 희망'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엄마의 사고가 긍정적으로 전환하게 된다. 또, 아이들이 보이는 변화로 '바뀌어지는 것'에 대해 '감동'을 경험함으로써 엄마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 또 '달라질 수 있는' 믿음은 아이가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애가 아닌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희망을 가지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게 된다. 사실 이러한 긍정적인 사고는 엄마를 버티게 하는 힘이자 아이를 돌보고, 아이로부터 경험하는 양육의 기쁨으로 보인다.

엄마는 치료를 통해서 아이가 평범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왜 하필 나에게'라는 관점보다는 '능력이 되니깐 내 아이에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런 생각은 아이를 조금 더 보듬어 주게 되고, 나에게 맡겨진 아이로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그냥 내 아이로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경험을 갖게 된다. 그냥 나에게 맡겨진 내 아이로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다. '스스로를 세뇌'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할 만큼 참여자에게는 어렵고 힘든 과정이며, 한편으로는 나에게서는 다른 보상이 주어졌으며 다른 집에는 다른 어려움이 있을 거란 막연한 생각으로 버티어볼려고 애를 쓰게 된다.

참여자는 아이가 '엄마 생각하는거'를 보거나 막연하게나마 '좋아질 수 있겠지'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또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며 '일 년에 하나씩'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한다. 엄마는 아이에게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어떻게든 나에게 '맡겨진' 아이이기도 하고 '내 자식'이라는 생각을 가진다. 엄마로서 '어떻게 하느냐'가 '달라질'가능성을 갖게 하고, 이것이 포기할 수 없이 '끝까지'가야 하는 이유이다.

...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저한테 너무 감사하고 저한테 상을 주고 싶더라고요 어쩔 때는 내가 아주 너무 대견해 내가 신랄도 없이 어떻게 보면 혼자서 정말 애들키우는것 같은 거예요(1모).

... 이제 아이가 그니깐 관점의 차이잖아요 응 나한테 맡겨진 거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거 나한테 그냥.. 세운이라는 그냥 이런 특징을 가진 아이가 내가 또 그런 능력이 되니깐 맡겨줬는지 또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특성에 맞게 이제 지금 생긴 마음 그거 있잖아요(2모)

자식이니깐 책임을 져야지 그런 책임감 하구요 그리고 제가 마음을 이렇게 먹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아니면 이 애가 아니면 더 힘들게 살았을 수도 있었을 거야 뭐 경제적이라든지 뭐 다른 고통들일 있었을 거야 내가 이 아이 때문에 그 대신 크게 잘사는 건 아니라도 그대신 다른 거를 누릴 수 있게끔 이렇게 저 스스로를 세뇌시켰어요 또 다른 집안들은 또 다른 문제들이 있을 거잖아요(3모).

이 아이가 어떤 치료를 받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아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 다행

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사실은 엄마가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어떤 치료를 받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아이를 놓지 않는다면 어쩌면 뭐 어쩌면이 아니고 나아질수 있는 부분들이고 나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깐 모두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해야죠 (K모).

③ 아이의 이쁜 점을 찾아가는 엄마

엄마로서 아픈 아이를 키우는 건 무척이나 힘든 일이다. 그러나 늘 그렇지 만은 않다. 한번도 '학교를 안가겠다' 한 적이 없고 '결석'조차 해본 적도 없다. 또, 애교를 부리면서 '어린애처럼' 굴기도 하고, '앵겨붙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내 아이는 먹을 것을 내어주고 하는 '정이 많은' 아이기도 하다. 때로는 '태어난 게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표현하는데, 이런 말은 엄마로서 가슴 뭉클하게 하는 경험이다. 그리고 참여자는 내 아이가 내성적이지만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아이로 표현하고 기억하고 있다.

아이의 이야기는 엄마를 고통스런 경험으로 기억하게도 하지만 세상을 버틸 수 있는 '힘'으로 변화기도 한다. 아이는 '힘든 만큼 보람이 더 크지'하던 말에서 '자기가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엄마 아들로 태어난 게 너무너무 감사해'라는 표현으로 엄마를 울리게 한다. 이런 표현은 엄마로 하여금 아이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더욱 강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때까지 학교를 안가겠다고 한 적은 없어요 아침에 늦게 움직이긴 좀 느리잖아요 그러가지고 학교 가지마라 이러면 안돼요 가야되요 그러니깐 결석은 한번도 안했어요 학교를 빠져 먹는건 전혀 없어요...(M모)

내가 변한만큼 애가 변하구나 자기는 처음에는 내가 진짜 힘들어서 울고 하니깐 엄마 내가 힘들게 해서 그래 하고 지도 막 울더라구요 어릴때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지금은 뭐라하냐면 보람이 두배지 힘든만큼 보람이 더 크지 세배 네배지 말도 잘하거든요 지금은 그러면서 나는 엄마아들로 태어난 게 너무너무 감사해 지금 자기가 사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녀석도 제 종교까지 바꿨어요(M모).

(7) 버티내는 힘

참여자들은 평범하지 않은 아이를 키우면서도 삶에 긍정적이었다. 무엇이 그들을 긍정적인 힘으로 견뎌내게 할까 탐색해보니 주변의 지지에서 힘을 얻고 자신만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었다. 시작은 원하지 않았지만 마라톤은 엄마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면 쉬기도 하고 주변의 박수와 나와 함께 뛰어주는 사람들로 부터 힘을 내며 버티낸다.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혼자자 아님을 알고 고통을 버티게 되었다.

① 엄마의 스트레스 풀기

엄마는 다양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다.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아이한테 '좋아지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고, 동네 사람으로부터 친밀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활용하거나 친구와의 수다를 떨거나 노래를 불렀다. 엄마에게서 친구와의 수다는 또 다른 활력이자 내 속을 푸는 기회들이다. 엄마들에게서 수다만이 늘 답은 아니다. 오히려 '자존심'이 강한 엄마는 '가족'외에는 이야기를 잘 할 수 없는데, 나만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다는 느낌을 엄마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시간은 엄마에게 힘이 되는 시간이다.

저는 엄마 일을 가지는 것은 애한테 너무 무관심하지만 았다면 좋을것 같더라고요 같이 치료하는 언니

는 애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안좋은일이 있으면 심장이 떨리거나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스스로 만드는게 많더라고요 저두 그랬었거든요 아빠가 그런일이 있어서 그런지 일을 하게 되었지만 엄마가 열심히하는 것을 애들도 많이 보는것 같더라고요 엄마 힘들다는 것을 예전같으면 상상을 하지 못할 만마를 해주던가(9모).

저는 가슴에 못넣어 놓고 있거든요 힘들면 힘들다고 그러니깐 친구나 뭐 우리 시대일이 힘들면 형님이랑 술잔잔하면서 어머니 때문에 속상했다 그런 이야기 들으니깐 안좋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형님도 내가 들어도 안좋더라이러면 그다음에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었을 거다 어머니도 힘들고 니를 못 도와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건데 나는 이거를 입장차이니깐 니가 들으면 기분이 나쁘겠다 뭐 이렇게 풀릴듯이 이야기 하고 애들 정보나 이런 것을 못 듣는 것은 제가 어제 모임을 하는 엄마들이 있거든요 한 달에 한번씩 만나면 거기서 힘든것을 이야기하고(1모)

② 가족 지지

참여자인 엄마들은 아이들만큼 가족과 주위의 지지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엄마는 '칭정'식구와 '가족'으로부터 받는 지지가 힘이 된다. 칭정엄마의 '너무 잘 키우고 있어'라는 말은 세상의 어떤 칭찬보다도 힘이 된다. 어떤 엄마는 남편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내 아이의 아빠로부터 받는 지지는 '정말 좋고' '힘이 나고' 하는 경험이다.

지금 제가 이정도 하는 것은 제가 인제 웃으면서 하는 소리 ** 엄마 너무 잘해 우리 칭정엄마한테도 나 같하고 있지 우리 엄마가 너무 잘 키우고 있어 우리 딸처럼 이렇게 하는 애가 어땠어 이렇게 힘을 주시고...(1모)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 나는 학교에서 오는 전화에도 겁이 나고 심장이 뛰어서, 병이 나서 있는데... 아빠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만나서 해결하고 오니까너무 든든하고 힘이 나고 ...다음부터는 힘이 생기고 의지가 되더라고요...(1모)

③ 사회적 지지

엄마들은 '마음 둘 곳'이 필요했다. 엄마는 '애를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하기 위해 종교를 찾기도 하고, 종교 활동을 통해서 '차츰 나아짐'을 경험하기도 한다. 엄마를 도와주는 사람은 종교뿐이 아니다. 학교선생님은 '용기'를 내라고 하시고 오래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상담'도 해주신다. 엄마가 아이를 돌보거나 살아가는데 무척이나 힘이 되는 시간이다.

제가 성당에 다니는데 아버지가 그 많이 힘든 게 종교를 못가진 게 살면서 제일 후회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는 종교를 좀 만들어 달라 그런 생각도 왜 못했겠어요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종교를 가지는 것 하고 거의 어른이 돼서 갖는 거랑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아직 때가 안 묻어서 제가 다니면 다닐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다니는데 ...종교를 가짐으로서 ... 좋은사람들을 만나니깐 계속 다니게 되고...(1모)

.. 너무 감당이 안되서 요새는 성당에 가요 성당에서 가서 한번 믿어볼려고 예 저도 기도도 많이 하면 위로가 되더라 너무 감당이 안되 밤에도 애들 돌이 옆에 재워놓고 내가 기도를 많이 드리거든요 **도 이러면 좀 나아질까(2모).

④ 전문가 지지

엄마는 다양한 분야로부터 지지를 받고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쓴다. 정기 검진시에 '선생님'으로부터의 상담은 '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는 엄마뿐만 아니라 아이도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데, 아이 스스로 뭔가를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엄마로부터 대견함을 느끼게 한다. 전문가와의 소통은 아이에게 '관계형성'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상대편을 이해'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 이런 시간은 엄마들도 선생님들로부터 '위로'받는 시간이기 되기도 하고 '만족'이 되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다.

정기적으로 .. 힘들 때마다 선생님한테 신청을 해가지고 상담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시간정도 하고나면 정말 답이 나오요(j모).

애가 감정이 조절이 안되거나 힘들거나할 때 상담 쌤한테 이렇게 가는거예요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고 할때 제가 여기 복지관에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 자신도 위로도 많이 받고 했던것 같아요(k모).

.. 복지관을 통해서 1:1 수업을 하면서 ... 이 복지관에서 수업을 받으면서 **이가 관계형성에 있어서 상대편을 이해하거나 어떤 상황을 이해하거나 게임을 통해서 게임룰을 적용하는 지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좋아졌거든요(h모).

내가 여기 **에 와서 많이 좋아졌어요 내가 여기 **와서부터 약을 안먹었거든요 왜 애보다 더 못하는 애들을 보니까 자체증 애들도 엄마 업혀서 온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을 보니까 그게 내한테 만족이 되는거라(m모).

(8) 현재진행형이지만 '그래도 이쁜 내새끼'를 위하여

참여자들은 힘든 아이를 키우면서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르는 방법도 체득하고 지혜도 생기면서 예전에는 힘들었던 상황이 연출되어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힘이 생겨가고' 있었다. 아이가 주는 긍정적 변화와 주변 가족의 지지, '다른 아이'를 보면서 희망을 가진다. 아이가 좋아지면 그만큼의 갈등 요소가 생겨나며 아이가 고학년이 올라갈수록 새로운 불안이 싹트기도 한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진행형으로 달리고 있지만 아이의 작은 변화에도 감사할 줄 알고 변화했던 경험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달리고 있다. 마라톤을 시작하면서부터 경험했던 고통들과 함께 내가 힘든 만큼 아이가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평범하지 않은 아이이지만 '그래도 이쁜 내아이, 내새끼'가 뛰고 있고, 가족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완주가 끝난 것도 일등을 위해 나아가는 것도 아니지만, 완주를 위해 나아가고 있고, 처음 시작보다는 건널만 하다는 것이다. 이제는 힘들면 쉴 수 있다는 마음도 생겼고, 주변의 경치도 보면서 내 아이의 손만을 잡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박수를 받으며 아이와 함께 내가 달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① 아이가 주는 희망

무엇보다 엄마에게 희망적인 일은 '쫄쫄'이라도 좋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말은 무슨 검사결과지에서 하는 이야기보다 더 신나고 반가운 일이고 더 믿고 싶은 일이다. 지금은 '그때 굉장히 별나고'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웃을 수 있을 정도로 아이가 변했다는 일이 즐거운 일로 경험되고 있다. 아이가 '엄마 맘'을 알아주기도 하다. 그래서 오히려 '의지'가 되기도 하고 '기특한 일이 생기기도 한다. 그동안의 어려운 여정 속에서도 아이가 성장하고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 엄마에게는 한가닥 희망이 되고 있다.

.. 지금은 막 그렇게 산만한 거는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많이 좋아졌다 당신아들 딱 보니까 옛날 보

다는 참 많이 좋아졌다 이런 식으로 그때 굉장히 별나고 막 그랬는데 그래 이야기를 좀 많이 그러거든요(d모)

② 주변 가족의 지지와 희망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힘든 부분을 누구보다 '아빠'와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무척이나 행복한 일이다. 설령 이런 일이 늘 있는 일은 아니더라도 '쫄'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엄마에게서 무척 '가벼워졌다'는 느낌이 되기도 하고 든든한 의지가 되는 일이다. 엄마에게서 아빠의 반응은 매우 민감하고 중요하다. 처음에는 '다 그렇지'라고 표현하며 무심하다가 아빠의 '조금씩'이나마의 변화는 '상당도 받아보고' '애한테 관심'을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런 변화는 엄마로서 힘을 얻게 되는 결과이다. 때로는 아이가 가족에서 '공통'의 주제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오히려 아이를 통해서 싸우기 보다는 '대화'를 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오히려 좋은 경험이 되기도 한다.

제가 이 아이 남자아이라 보니까 제가 힘든부분을 아빠가 이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대화도 좋하고 이야기도 좋하고 하니깐 훨씬 제가 마음이 생님 나아졌죠 훨씬 가벼워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좀 있어요(k모).

애들 아빠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무심한 사람 애들 다그릴지 막이러면서 애들이 병원에 다니면 워 그것가지고 병원 다니고 그래...제가 맨날 학교에 불려가고 맨날 이런 거 자체도 그 선생님 잘못됐다는 식이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되어 하고.. 5학년 때 선생님이 담임선생이 아빠를 딱 불렀어요 불려가지고 우리 아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 애기아빠가 조금 바꿨어요 바뀌면서 그때부터 애한테 관심도 가져주고 좀 진짜 힘들게 힘들게 복지관에 와서 선생님한테 상담도 받아보고 이렇게 하고 하면서 애기 아빠가 조금씩 애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j 모).

애라는 공통적인 주제가 있으니깐 항상 대화를 많이 하니깐 그러니까 싸우고 그런게 없죠 오히려 애 때문에(m모)

③ 현재 진행형이지만 '그래도 이쁜 내 새끼'를 위하여

그동안 아이의 변화에 엄마는 기쁨을 느끼고, 작은 변화에도 감사해할 줄 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내 아이가 더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엄마는 '욕심'도 생긴다. 아이가 약을 먹을 때 상태가 먹지 않을 때 상태와 같기를 바라게 된다. 그저 내 아이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늘 변함없는 엄마의 마음이다. 엄마가 아이를 잡고 있다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만을 고수할 순 없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6년 동안의 엄마 노력에 대한 '통쾌'한 답을 주는 곳도 없고, 오히려 믿지 못하는 일이 되었고, '해결'에 대한 신뢰가 없어 상담도 받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지원'을 경험했지만 엄마는 '용기'를 낼 수 없다. 어쩌면 용기가 아닌 엄마에게는 '도전'일 수도 있다. 내 아이 미래가 무엇인가 희망이 보이거나 끝이 보인다면 엄마들은 아마 포기하지 않을지 모른다. 아니 지금도 '포기' 할 수 없는 일일지도 모른다. 다만 뭔가에 대한 '갈피'를 잡을 수 있고 '명쾌'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지 '앞으로'를 예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무런 확신도 없고, 오히려 엄마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진행형인 아이의 작은 변화에도 감사할 줄 알고 변화했던 경험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달리고 있다. 무엇보다 평범하지 않은 아이이지만 '그래도 이쁜 내아이, 내새끼'라는 것이다.

약을 딱 먹기 시작하고 이라는데 애가 너무 양전해지고 너무 애가 저가 동생 동생하고 잠깐 있어 이게

안됐거든요 근데 당일 병원에 가서 병원진찰을 받고 계산을 한다고 잠깐 인제 동생하고 잠깐 있었는데 그걸 잠깐 다른애들은 잠깐 있었을 텐데 우리애는 그게 안됐었는데 그게 돼서 약을 처음 먹었는데 그때 너무 놀랐는데 쌤님 제가 욕심이 많아져서 그런지 좀 지나니까 또 아하 별로 크게 다른건 모르겠고 지금은 사실은 확 약 안먹을 때하고 먹을때 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k모)

내년에는 중학교를 가니까머리가 막 복잡하거든요 애를 일반중학교를 보낼것인가 특수반이 있는 그런 중학교를 보낼것인가 저도 아직 갈피를 못잡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것을 명쾌하다 답을 주는 사람이 없거든요(o모)

자랐을 때가 걱정이 되는거예요 쌤님 제가 지금 감싸가고 또닥거리고 또 뭐라하고 그렇게 하지만 크게 되면 제 손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애가 앞으로 자라서 앞으로 어른이 돼서 사회생활을 하게 될 때 정말 그때는 나아질 수 있을까 그런생각을 지금은 지금인데 그 앞으로를 더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 너무 안됐잖아요(k모)

2) ADHD 아동의 양육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글쓰기

ADHD 아동 어머니들의 양육경험의 중심현상은 '완주를 위해 자신과 싸우는 그러나 '도착점'이 다시 '출발점'이 되는 원하지 않는 마라톤'을 위해 달려가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어머니들의 경험속에서 강점관점의 본질은 '그래도 이쁜 내새끼와 함께'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즉 강점관점으로 본 ADHD 아동 어머니들의 양육경험의 본질은 '원하지 않은 마라톤이지만 그래도 이쁜 내새끼와 함께하기 위한 힘을 찾아가는 여정'임을 나타내었다. 원하지 않은 마라톤 경기에 참여하였지만 그 경험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도 하고, 아이를 위한 여정이 아닌 엄마와 아이가 함께 하는 여정이었다. '그래도 이쁜 내새끼'가 세상을 버터내는 '힘'이기도 한 것이다.

처음 산만하고 통제가 안되는 아이의 독특한 행동들을 겪는 '혼란의 연속' 속에서 아이의 행동으로 문제가 노출되기도 하지만 엄마는 방관을 하거나 무지와 두려움으로 무시하였다. 그러나 주변의 권유와 일련의 사건으로 'ADHD진단의 딱딱함'을 경험하게 되고 엄마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격을 받는다. 하지만 '엄마라는 운명'에 아이를 위한 총체적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하지만 이 시기는 엄마의 불안과 죄책감을 보상하기 위한 시간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총알이며 은총인 선생님의 말'에 쉽게 절망하고 감사하면서 엄마들은 내몰린 체 마라톤의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포기할 수도 없는 완주를 향해 달려가는 외로운 전투 과정에는 경제적인 부담과 가족들로부터 겪는 이중고로 엄마인 '나'도 병들어 가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로 인한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그 전투과정에서 아이에게 칭찬을 하면서 애정을 표현하려고 하지만 화가 나서 매를 들기도 한다. 하지만 엄마이기 때문에 다시 추스르고 내 아이를 위해, 나를 위해 아이의 이쁜 점을 찾아가며 '그래도 긍정적으로'살기로 한다. 하지만 자식을 위해 자신을 독려하지만 쉬운 과정은 아니다. 그럼에도 아이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버터내는 힘'을 얻게 된다. 이 시기가 병리관점에서 강점관점으로 변환의 전환점을 새롭게 구성하는 시점으로 보여진다. 때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엄마의 스트레스를 풀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엄마들은 원하지 않은 마라톤을 시작했고 마라톤이 끝났거나 고통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 경험이 고통스러운 것만은 아님을 인지한다.

평범하지 않은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지만 그 경험속에서 아이가 주는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가족과 주변의 지지로 인해 혼자가 아니라는 희망으로 오늘도 엄마는 완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현재진행형이지만 그래도 이쁜 내새끼를 위하여' 작은 변화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었고, 출발점을 바라보기보다 도착점을 바라보는, 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도착점’이 다시 ‘출발점’이 된다 하더라도 달려갈 수밖에 없는 마라톤이지만 이전보다 ‘힘’과 ‘희망’을 가지게 된 것이다.

엄마로서 아픈 아이를 키우는 건 무척이나 힘든 일이다. 그러나 늘 그렇지 만은 않다. 한번도 ‘학교를 안가겠다’ 한 적이 없고 ‘결석’조차 해본 적도 없다. 때로는 ‘태어난 게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표현하는데, 이런 말은 엄마로서 가슴 뭉클하게 하는 경험이다. 아이의 행동은 엄마를 고통스런 경험으로 기억하게도 하지만 세상을 버틸 수 있는 ‘힘’으로 변하기도 한다. ‘엄마 아들로 태어난 게 너무나 감사해’라는 표현으로 엄마를 울리게 하기도 한다. 이런 표현은 엄마로 하여금 아이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더욱 강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힘든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르는 방법도 체득하고 지혜도 생기면서 예전에는 힘들었던 상황이 연출되어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힘이 생겨가고’ 있었다. 이 마라톤 여정은 아이를 위해 아이 손을 잡고 앞만 보며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아이를 보며 달려가는 것이다. 힘이 들면 쉬어가며 된다는 것도 알게 된 것이다. 선두가 되기 위해 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든’ 것도 보이는 여유도 생겨나게 된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ADHD 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들의 체험을 통한 강점관점적 본질의 의미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면접은 2010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약 12개월동안 14명의 ADHD 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2~3회에 걸쳐 현상학적 연구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ADHD 아동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중심적인 현상은 ‘완주를 위해 자신과 싸우는, 그러나 ‘도착점’이 다시 ‘출발점’이 되는 원하지 않는 마라톤’을 위해 달려가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머니들은 마라톤의 여정속에서도 ‘그래도 이쁜 내새끼와 함께하기위한 강점의 본질을 나타내었다. 즉 ‘원하지 않는 마라톤이지만 그래도 이쁜 내새끼와 함께하기 위한 힘을 찾아가는 여정’이 강점관점적 양육 경험이었다.

ADHD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ADHD의 의미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ADHD는 통제가 안되거나 산만하거나 폭력이 심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독특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행동들보다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것은 ADHD로 인한 친구들과로부터의 왕따, 선생님들의 무관심과 방치, 어머니 자신의 방관과 무지였다. 아이의 행동보다 그로 인한 경험들이 더 건디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Cantwell(1996)이 설명한 ADHD 아동의 특성으로 인한 부정적인 피드백과 관련되어 있으며, 어머니의 고통은 양육태도와 연관됨(Biegel, 1994)을 설명한다.

둘째, ADHD는 정신과 검사와 진료를 반드시 받고 시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치료과정에서 약물로 인한 부작용을 경험하거나 아이가 약을 거부하거나 다른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확한 진단을 받고 아이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약물과 심리치료 등을 통해 엄마가 ADHD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아울러 그 시기가 빠르면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셋째, ADHD아동을 위한 치료는 ‘엄마’ 혼자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이 스스로도 노력해야 하지만 가족, 학교선생님의 지지는 아동을 양육하는 주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특히 아빠의 참여와 지지는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며 학교선생님의 이해는 어머니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이다. 물론 치료과정에서의 전문가 지지도 아동을 바르게 성장하는 지침서가 된다고 하였다.

마지막 연구문제인 ADHD 아동을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그래도 이쁜 내새끼와 함께하기 위한' 강점의 본질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ADHD 아동을 바라보는 병리적 관점에서 강점관점으로 변화하는 전환점이 있다는 것이다 (Allvin et al., 2007). 본 연구에서는 그 시기를 '그래도 긍정적으로' 아이를 바라보는 시점으로 나타났다. 엄마들이 아동을 위해 치료를 시작한 것은 엄마의 불안을 해소하고 죄책감을 보상받기 위한 비중이 컸다면 이 시점부터는 아이를 바라보는 태도 자체가 변화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 여전히 ADHD 아동을 양육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태도가 혼재되어 있지만 매를 드는 것은 '왜 엄마가 매를 드는지'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고, 엄마 스스로 어쩔수 없는 행동을 한 것임을 이해를 구하게 된 것이다.

둘째, 우리 아이는 '특별한 아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특별하기 때문에 그 차이를 빨리 발견하고 인정하였다.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키우는 게 아니라 '조꿈'의 좋아집에 희망을 가지며 아이와 함께 마라톤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아동의 증상제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더 넓은 영역에 관심을 두고(Surgaeon General Reports, 1999), 희망과 성장을 통해 나아가기 시작한 것이다(Rapp, 2006). 아이를 수용하기 시작한 것이다(김형숙, 2007).

셋째, 엄마의 긍정적 사고는 아이에게 '달라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였고, '능력이 되니깐 내 아이에게'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였다. 엄마들 중에서는 선천적으로 긍정적인 성향도 있었지만 부모교육이나 종교를 통하여, 치료과정에서의 상담 등으로 인하여 '아픈 아이'가 아닌 '엄마 맘을 알아주는 그래도 이쁜 내새끼'로 변화되고 있었다. 이는 아동에 대하여 엄마가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Scorgie and Sobsey, 2000).

넷째, 엄마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직장일로 관심이 분산되거나 더 힘든 아이들을 위한 봉사를 하거나 친구와 수다를 하더라도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방법이 있으며 또 그렇게 행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엄마에게는 늘 지지를 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때로는 남편이 힘들게도 하였지만 지금은 든든한 지원자가 되었고, 친정식구, 친구들, 종교활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위로를 해 주는 힘이 되었다. 때로는 학교선생님과 의사, 사회복지사, 담당치료선생님 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어려운 순간들을 헤쳐 나갔다. 그 시간을 엄마들은 '위로받는 시간'이라고 하였으며 '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엄마들은 힘든 아이를 키우면서 '힘이 생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희망을 가진다고 하였다. 마음을 추스르는 방법도 지혜도 생기면서 힘들었던 상황이 연출되어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이다. 마라톤 완주를 위해 현재진행형으로 달리고 있지만 아이의 작은 변화에도 감사할 줄 알고 변화했던 경험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고통에도 굴하지 않는 회복력과 힘이 생겨났음을 의미하며 자발적인 치유능력이 형성되어감을 의미하는 것이다 (Saleebey, 2001; 2002).

이러한 경험적 근거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ADHD 아동의 어머니들은 진단전 혼란시기를 경험하며, 아이가 보이는 독특한 행동에 대하여 몹시 당황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엄마의 방관'으로 이어지는데, 이 시기의 적절한 대처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왕따'를 경험하거나 '부적응'을 경험하게 되고, '친구와 잦은 싸움'을 하게 된다. 또, 이러한 경험은 어머니로부터 '두려움'과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 사회에서 마치 문제가 있거나 특별한 행동으로 보는 시각에서 문제가 비롯되며 이러한 결과는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포기하거나 놓치게 되는 결과를 만들게 된다. 즉,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조기개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동과 부모들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에 대한 예방교육과 홍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의 초기 예방접종과 같이 ADHD에 대한 상식이나 내용이 일반화 되어 아동이 출생되는 시점부터 아이의 어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기초적인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책자가 유치원, 어린이집, 소아과, 사회복지시설을 통한 홍보로 누구나가 쉽게 접근하고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ADHD의 최초 진단계기는 주변의 권유나 엄마의 적극적인 판단과 사건으로 인한 검사로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두 쉽지 않은 경로이고, 이 과정부터 아동과 엄마는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게 된다. 특히 '비싼 진단비'와 같은 경우는 아이를 조기에 개입하는 경로를 차단하는 결과를 가지게 된다. 또한 ADHD의 경우 시간이 지연될수록 아동과 가족이 겪는 어려움이 크며 특히 아동에게는 발달단계에서 이루어야 하는 과업 중 또래관계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진행되는 IQ검사와 최근 진행되는 건강검진시 모든 아동이 경험하게 되는 과정으로 준비한다면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내 아이의 아픔을 발견하는 과정과 아픔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누구보다 '엄마'는 상처를 경험하게 된다. 찢겨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엄마의 지지체계는 중요하다. 지지체계에 대한 강화는 아이의 변화와 엄마를 지탱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지지체계를 살펴보면 선생님과 가족, 주변사람들에 대한 지지와 격려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볼 때 향후 아동에게 나타나는 ADHD와 같은 질환이 발견될 때 아동을 중심으로 한 개입에서 엄마와 가족체계를 지지해주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거나 자조집단과 같은 지지체계를 운영하여 지지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넷째, 치료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엄마는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가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엄마는 '칭찬' '사랑의 표현' '반복'과 같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된다. 그러나 늘 긍정적일 수는 없다. 때로는 '매'를 듣기도 '혼내기'도 하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는 엄마가 자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와 분노조절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지극히 일반적인 반응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의 개입에서 엄마에 대한 양육기술과 스트레스 해소법에 대한 교육이나 개입은 필요하며, 동시에 이러한 개입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지속적인 개입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많은 연구에서 그 효과성이 입증된 것이다(Findling 외, 2009; Jans 외, 2009).

다섯째,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은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시기이다. 아이 치료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이 과정은 아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면서 나타나는 결과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아동의 치료과정의 정도와 향후 방향에 대해 지속적인 부모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부모상담의 기회가 의무적 또는 상설로 열리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에서는 ADHD 아동 가족을 위한 서비스 욕구(Kendall, 2005)에 대한 연구와 같이 가족의 욕구를 파악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의 변화가 심한 중학교와 고등학교 아동을 양육하는 경험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한부모의 ADHD 아동의 양육경험이나 ADHD의 세부유형에 의한 양육 경험의 근거로는 부족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토대로 향후 이러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제언한다.

참고문헌

- 강현정. 2006. “한국아동인성검사(KPI-C)에 나타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아동과 일반아동의 특성비교”. 명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 김경남. 2005. “어머니의 장애인식, 양육태도 및 자아존중감이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ADHD)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남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 김민동·정철호·이상복. 2007. “ADHD 진단용 연속 수행검사 개발연구: 부주의 평가”. 『정서·행동장애연구』. 23(1): 105-125.
- 김수영·노혜련. 2011. “강점관점 사례관리 이용자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2011 한국사회복지학회추계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pp. 135.
- 김형숙. 2007. “근거이론을 이용한 ADHD 아동 양육경험”. 『가족과 문화』. 19(4): 193-222.
- 노혜련·유성은. 2007. “강점관점 사례관리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5(1): 75-103.
- Roberta G. Sands·신혜중. 2008. “강점관점에서 본 조손가정 아동의 경험”.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6(1): 157-172.
- 류미아. 2008.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ADHD성향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 문유선·김도훈. 2001. “청소년에서 자녀가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문제행동의 연관성-서울 시내 남자와 등학생을 대상으로-”.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대한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pp. 237-244.
- 박지영. 2010. “자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생존경험에 관한 해석학적 현상학 사례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6:203-231.
- 신경림 . 2004. “현상학적 연구의 이론과 실제”. 『간호학 탐구』. 12(1): 49-68
- 양옥경·김미옥. 1999. “사회복지실천에서의 권한부여 모델에 관한 고찰”. 『사회복지』. 99 겨울호. pp155-172.
- 유지영·김춘경. 2008. “음악치료 기법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ADHD아동의 문제행동 개선과 사회기술 향상에 미치는 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24(2) : 255-274.
- 윤미연. 2008. “ADHD아동을 위한 문학치료 사례연구”. 『문학치료연구』. 9: 179-226.
- 이미아. 2008. “ADHD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과 영향요인간의 관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이영나. 2006. “ADHD 성향 아동의 창의성과 자기유능감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이원영. 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미간행).
- 조수철·신윤오. 1994. “파탄적 행동장애의 유병율에 관한 연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5(1): 141-149.
- 한혜경. 2009. “제가 노인 대상 강점관점 사례관리의 효과성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4): 243-263.
- Allvin R., Berg K., Idvall E and Nilsson U. 2007. “Postoperative Recovery : A Concept Analysi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57(5): 552-558.
- Angiullo, L., S. K. Whitbourne and C. Powers. 1996. “The Effects of Instruction And Experience on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Educational Gerontology* 22: 483-495.
- Barkley, R. A. 1997. “Behavioral inhibition, sustained attention, and executive function: constructing a unifying theory of ADHD”. *Psychological Bulletin*, 121:65-94.
- Baumrind, D. 1967. “Child care practices anteceding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75: -88.

-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ed, M. L. Hoffman & L. W. Hoffman, Russell Sage: New York.
- Biegel, D. E., Milligan, S. E., Putnam P. L., and Song, L. 1994. "Predictors of Burden Among Lower Socioeconomic Status Caregivers of person with Chronic Mental Illnes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30(5): 473-492.
- Cantwell, D. P. 1996.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 review of past Child with birth defects".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1:55-265.
- Cox, L. 2001. "BSW students favor strengths/empowerment-based generalist practice". *Families in Society: The Journal of Contemporary Human Services*, 82(3):05-313.
- Cramond, B. 1995. "The Coincidence of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nd Creativity.(RBDM 9508). Storrs, CT: University of Connecticut". *The National Center on the Gifted* 1(1):123-135.
- Davis, G.A. 1996. Measuring and predicting creativity: Issues and strategy.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entitled "The role of school, the family, and society in the development of creativity", University of Qatar, Doha, nt.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De jong, P. and Miller, S. 1995. "How to interview for client strengths". *Social Work*, 40(6): 29-736.
- Dyson, L. I. 1993. "Response to the Presence of a Child With Disabilities: Parental Stress and Family Functioning Over Time". *American journal on Mental Retardation*, 98(2) : 207-218.
- Early, T. and Glenmayer, L. 2000. "Valuing families: Social work practice with families from a Publishing Company Pacific Grove, California.
- Ferrari, M., Mathews, W. S., & Barabas, G. 1983. "The Family and Child with birth defects".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1:255-265.
- Findling, R. I., Connor, D. F., Wigal, T., Eagan, C and Onofrey, M. N. 2009. "A Linguistic Analysis of In -office Dialogue Among Psychiatrists, Parents, and Child and Adolescent Patients With ADHD". *Journal of Attention Disorders*. 13:78-86.
- Hartman, T. 1997. *Attention Deficit Disorder: A Different Perception*. Grass Valley, Calif.: Underwood Book.
- Islay, S. L., R., Clafelter, D., & Parke, P. D. 1999. "Parent and child expressed affect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 Modeling direct and indirect pathways". *Development Psychology*, 35(2):547-560.
- Jans, T., Philipsen, A., Graf, E., Ihorst, G., Gerlach, M and Warnke, A. 2009. "Does the treatment of maternal attention deficit and hyperactivity disorder(ADHD) enhance the efficacy of a behavioural parent trining for the treatment of their children's ADHD?" Study protocol of a randomized controlled ulticentre trail. *ADHD Atten Def Hyp Disord*. 1:33-45.
- Kendall, J., Leo, M.C., Perrin, N and Hatton, D. 2005. "Service Needs of families With Children With ADHD". *Journal of Family Nursing*. 11(3): 264-288.
- Kisthardt, w.1992. "The strengths perspective of case management with persons suffering from severe mental illness". In Saleebey, D.(Eds), *The strengths perspective in social work practice*. New York: Longman, pp.59-83.
- Mcloughlin, J. A., Clark, F. L., Mauch, H. R., & Petrosko, J. (1987). A comparison of parent-child

- perceptions of students learning disabilities. *Journal of Disabilities*, 2 :57-360.
- Mussen, Conger and Kagan, 1979.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3rd ed, New York : Happer & Row Publisher. of their parents".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29: 150-154.
- Olweus, D. 1993. Victimization by peers : Antecedents and long-term outcomes. In K. H. Rubin & J. B. Asendorpf(Eds.).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pp. 315-341).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Pastor, P. N., & Reuben, C. A. 2002. Attention deficit disorder and learning disability: United States, 1997-98. In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Vital Health Statistics(DHHS Publication No. PHS 2002-1534). Hyattsville, MD: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10 years. *Journal Am Acad Child Adolescent Psychiatry*, 35(8):978-987.
- Rapp, C. 1992. "The strengths perspective of case management with persons suffering from severe mental illness". In Saleebey, D.(Eds), *The strengths perspective in social work practice*. New York: Longman, pp.45-58.
- _____, C. A., 2006. *The Strenths Model - Case Management with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Oxford University press.
- Saleebey, D, 1996. "The strengths perspective in social work practice: extensions and cautions", *Social Work*, 41(3): 96-305.
- _____, D. 2001a. "The diagnostic strengths manual?". *Social Work* 46(2):183-187.
- _____, D. 2001b. "Practicing the strengths perspective: Everyday tools and resources". *Families in Society: The Journal of Contemporary Human Services*, 82(3):21-222.
- _____, D. 2002. *The strengths perspective in social work practice*(3rd ed.). Boston: Allyn and Bacon
- Schaefer, E. 1961. "Converging Conceptual models for maternal Behavior and for Child Behavior", *Parental Attitudes and Child Behavior* , ED, J. C. Glidewell, Charles C. Thomas Publisher Inc.
- Scorgie, K. and Sobsey, D. 2000. "Transformational Outcoms Associated with Parenting Children who have Disabilities". *Mental Retardation*, 38: 195-206.
- Smith, P. K., and Sharp, K. 1994. *School Bullying : Insights and Perspectives*(Eds.). London : Routledge.
- Surgaeon General Reports. 1999. "Mental health: A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 Chapter 2,The Fundamental of mental health and menral illness", www.mentalhealth.org.
- Turnbull, H., Guess, D. and Turnbull, A. P. 1988. Vox Populi and Baby Doe. *Mental Retardation*, 26: 127-132.
- <http://stat.mw.go.kr/stat/data>

A Study on the Strengths Model-based Parenting Experience of the Children with ADHD.

Choi, Mal-Ok
(Kyungshung University)

This study was aimed to seek the essential meaning of the Strengths Model based experience of the mothers of the children with ADHD. To achieve such goal, a phenomenological study was carried out from April 2010 to April 2011 covering about 12 months in the way of 2~3 times of interviewing with 14 mothers of the children with ADHD.

As a result, the essence of the experiences of those mothers was interpreted as 'the running of unwanted marathon struggling themselves to complete it'. The joining in the unwanted marathon turned out to have led 'me' the mother of the children with ADHD into miserable pain, but that is the 'energy' for 'my child' to endure the world. The essence of those mothers' experiences were divided into eight processes by timely constitution.

They firstly experience 'a serial confusion' by their children's odd behaviour which turns out to be 'a semiconscious feeling by the diagnosis with 'ADHD' but then they make full efforts for their children accepting their 'maternal fate'. In that process, they participate in the unwanted marathon with the feeling of misery and gratitude for the 'sayings of teachers which play the roles of shot and grace'. The process was expressed as 'marathon like pain' They make a resolve to live positively in the midst of lonely struggle unable to give up toward the finish line for 'my child and myself'. They encourage themselves for their children, but that's not easy process.

Nevertheless, they gain enduring energy supported by their child, family and specialists. Those mothers keep running today also for their 'beloved doves enduring the ongoing hardship' from the raising of abnormal child toward the finish line of the marathon they have to run for even though the 'finish line' may turn into 'starting point' again' This researcher submits here the maternal experiences above as the task to practice social welfare for the mothers of the children with ADHD and the children themselves.

Key Ward: Strengths Perspective, the children with ADHD, Parenting Experience, Phenomenological Methods.

[논문 접수일 : 11. 11. 28, 심사일 : 11. 12. 05, 게재 확정일 : 12. 01. 09]